

이 자료는 2005.10.14(금요일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報 道 資 料	생 산 일	2005년 10월 13일
		생산부서	정책기획관실 교육홍보팀
		담당과장	진승호(2110-2327)
		담당자	문종철(2110-2338)

題 目 : 초 · 중 · 고 경제 관련교과서 개선작업 추진

◇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*이 공동으로 초 · 중 · 고 경제관련 교과서(114종)를 학계에 분석 의뢰한 결과, 446곳이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

* 재정경제부, 한국은행, 전경련, 대한상의, KDI

< 연구배경 >

- ☐ 그동안 학계 및 교육현장, 기업 등에서 학생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되어 왔음
- ☐ 이에 따라,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교육관련 5개 기관이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 · 중 · 고 경제교과서 분석작업을 추진

< 추진경과 >

- ☐ 2005.4월 연구용역 개시

○ 연구진 : 대학교수 8명

- 공통과정 : 손정식(한양대), 박형준(성신여대), 한진수(경인대), 이윤호(순천대)
- 심화과정 : 김종석(홍익대), 권남훈(건국대), 이광훈(중앙대), 이철인(건국대)

* 공통과정은 초 · 중 · 고1까지, 심화과정은 고2부터 선택

○ 분석대상 : 초·중·고 경제 관련 교과서 114종(지도서 포함)

- 초등학교 10종, 중학교 54종, 고등학교 공통 16종, 고등학교 선택 34종

□ 2005.7월, 중간세미나 개최(2회)

○ KDI 주관으로 재경부, 교육부, 한국은행, 전경련, 대한상의 실무자 및 연구진, 일선교사들이 참석, 내용 검토

□ 2005.9월, 용역결과 초안 제출, KDI 및 재경부 실무검토

< 교과서 분석내용 >

□ (교육과정별)로는 초등학교 교과서 64건, 중학교 교과서 87건, 고등학교 교과서 295건 등 총 446건의 내용이 지적되었음

□ (유형별)로는,

① 개념상의 오류 또는 서술이 부정확 : 200건

②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제시 : 89건

③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: 58건

④ 편향적 시각 또는 비주류적 해석: 23건

⑤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서술 : 19건

⑥ 주관적인 훈계·윤리적 내용 : 26건

⑦ 교과과정상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등 : 31건

< 향후 계획 >

- ☐ '05.10.14(금), KDI 주관으로 동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(별첨참조)
 - 교육인적자원부는 상기 연구결과 및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진과의 협의를 거쳐 2006학년도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음
- ☐ 아울러 상기 연구의 후속조치로 재정부 등 5개기관이 경제관련 사회과 「교육과정」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(금년중)
 - 교과서 단순 개편은 일부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,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, 경제관련 사회과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연구 필요성 대두
 - 합리적인 경제교육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요소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과정 개편('07.2월 완료예정)에 반영할 계획

<별첨1> 유형별 지적사례(예시)

<별첨2> 연구결과 발표세미나 개최계획

재 정 경 제 부 · 한 국 은 행
한 국 개 발 연 구 원 · 대 한 상 공 회 의 소
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

① 개념상의 오류 또는 서술이 부정확

- “1995년에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이르렀고”
 ⇨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로 수정
- 노동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크면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,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크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
 ⇨ ‘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크면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’로 수정
-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거나,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는 모든 활동을 산업이라 한다
 ⇨ 이런 모든 활동은 경제활동이며, 경제활동의 단위 또는 비슷한 경제활동을 분류하여 묶은 것이 산업임
-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
 ⇨ 개념설명이 부족하므로 ‘물가지수는 서로 다른 시점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년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비교년도의 물가수준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’로 수정
- 매점이란 물건을 사 모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, 매석이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을 말한다. 즉,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물건을 사 모아 팔지 않고,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 파는 행위를 말한다
 ⇨ 매점매석은 가격을 지배하여 폭리를 얻으려는 행위이므로,

‘매점매석이란 독점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’등처럼 구체적으로 서술

- 우리나라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,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

⇒ 규모와 비중을 구별하지 못한 오류. 줄어든 것은 경공업 제품의 수출(액)이 아니라 수출비중임

-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,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를 찾는다

⇒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량을 줄이는 것임

- 이와 같이,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하고, 복지후생 수준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.

⇒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‘국내총생산은 이와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경제규모를 측정하고,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’로 수정

- 우리나라의 산업은 크게 농림수산업, 광공업 및 건설업,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

⇒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크게 농림어업, 광공업, 전기가스수도업, 건설업,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

- ‘포항제철’을 변경후의 회사 이름인 ‘포스코(POSCO)’로 수정하고,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통계자료 찾는 방법을 현행 통계정보시스템(KOSIS) 내용에 맞춰 안내하는 등 최근의 변화내용을 반영할 필요

②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제시

-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에 '99년 자료를 사용, 기타 GDP 통계,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 90년대 자료를 인용
⇒ 최신 자료로 보완할 필요
- IMF 경제위기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심화를 예시한 자료로서 외환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97, 98년 자료를 제시
⇒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자료를 경제위기 이후의 자료로 대체할 필요
-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 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. 그 결과 1971년에는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
⇒ 당시의 경제상황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'1971년에는 수출 10억 달러'가 무의미한 수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'...그 결과 1960년에는 3,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1971년에는 10억 달러,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'로 구체적으로 수정
- (삽화) 미래의 학교 모습 삽화에 구식 모니터형 컴퓨터를 사용
⇒ 최신 자료로 보완
- 기타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통계자료 사용 등

③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

- 실업은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때도 발생하지만,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할 때에도 발생한다
⇒ 보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'기술혁신 등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로 실업이 발생하기도 한다'로 수정

○ 이러한 것을 ‘**발떼기**’라고 하는데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사재기를 통한 투기의 한 형태이다

⇒ 발떼기는 농작물 가격폭락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들이 농민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떠안는 계약구조로서, 발떼기 그 자체는 위험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이나 선물시장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점이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투기사례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

○ 과점시장에서는 생산자들 간의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, 생산자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간의 협정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

⇒ 과점시장에서의 기업전략 및 경쟁의 수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같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‘과점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의 숫자가 적어 서로간에 의존성이 크고, 이에따라 다양한 전략과 경쟁양상이 나타난다. 그 결과 매우 경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,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들끼리의 담합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독점시장에 가까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’ 등처럼 중립적으로 서술할 필요

○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, 기업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

⇒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면 기업들의 창의력 발휘가 저절로 이뤄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모호한 기술이므로 ‘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’는 기술로 수정

4] 편향적 시각 또는 비주류적 해석

- 현재 세계는 세계를 단일 시장권으로 보는 자유무역주의와 동시에 지역별 경제협력을 하는 신패권주의로 나아가고 있다
 - ⇒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신패권주의라는 용어를 지역주의라는 용어로 수정할 필요
- 세계화와 정보화의 그림자 - 1968년 24개였던 최빈국 수는 30년이 지난 1999년 49개국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
 - ⇒ 군소 신흥독립국가의 증가로 인해 최빈국 수가 증가한 사실을 간과하고, 마치 세계화 자체가 최빈국의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과서 내용 삭제
-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...(중략)... 제3의 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, 사회적 보호, 복지 등의 문제는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
 - ⇒ 제3의 길이라는 구호 자체가 아직은 분명한 개념정립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'제3의 길'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균형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 친화적 개발이 허구라는 주장에 치우친 기술 등

5]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기술

- 이처럼 시장은 사람이 아닌 돈이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며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다
 - ⇒ 시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주관적이고 부적절한 평가이므로 삭제할 필요

-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,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,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
 - ⇒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우려가 있는 서술이므로 삭제할 필요
- 천민자본주의는 저급한 윤리 의식하에서 주로 투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한 유형이다
 - ⇒ 천민자본주의는 후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확대하여 자본주의 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 용어로서 자본주의 유형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
- 1990년대 이후...(중략)... 자발적인 질서유지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들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
 - ⇒ '90년대 이후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시장참여역량을 과소평가

6] 주관적인 훈계 · 윤리적 내용

- 요즈음 음식점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 흔히 눈에 띄는데, 단란한 가정과 생활의 여유를 보여주는 흐뭇한 광경이다.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서 또 다른 일면,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외식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, 왕성한 소비욕구 이외에도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엿보인다
 - ⇒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서 경제원리를 가르치는 경제교과서의 내용으로는 부적절
- 경제원리 자체보다는 '개인적인 이기심 자체' 등과 같이 윤리적 내용을 강조하는 서술이 많음

㉚ 교과과정상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등

- (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) 우리나라 수입상품의 변화 - 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
 - ⇒ 초등학교 과정내용으로는 어려운 개념이므로, '우리나라가 수입하는 5대 수입품목' 등으로 대체할 필요
- (고등학교 선택교과서) 국내총소득(GDI)과 국민총소득(GNI)에 대한 설명
 - ⇒ 대학의 '경제원론' 수준의 개념이므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부적절
- (고등학교 선택교과서)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개, 돼지만도 못한 존재였다
 - ⇒ 교과서가 적절한 수준의 소양과 교양을 습득시킨다는 차원에서 세속적이고 저속한 표현은 지양할 필요
- (고등학교 선택교과서) 그들은 사회로부터 실추된 자신들의 자존심을 찾는 한 방편으로 자신들도 볼만한 사내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, 그리고 더불어 돈을 벌기 위해 일생에 단 한번 옷을 벗기로 한다. '풀 몬티(Full Monty - 옷을 몽땅 벗어버린다는 뜻의 영국 속어)'는 자존심 회복의 한 방편으로 옷을 벗는 여섯 실업자들의 이야기이다.
 - ⇒ 교과서에서 이러한 세속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보다 교육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로 대체

1. 일시 및 장소 : 2005. 10. 14(금) 13:30~18:30, KDI 대회의실

2. 세미나 일정 및 내용

☐ 등록 및 개회식(13:30-14:10)

☐ 심화과정(14:10-16:10)

○ 연구자 발표(30분)

- 김종석(홍익대 경영학과 교수), 권남훈(건국대 경제학과 교수),
이광훈(중앙대 경제학과 교수), 이철인(건국대 경제학과 교수)

○ 지정토론자(각10분)

- 권영부(서울동북고등학교 교사), 우원식(명덕고등학교 교사),
조동근(명지대 경제학과 교수), 차문중(KDI 선임연구위원)

○ 자유토론

☐ 공통과정(16:30-18:30)

○ 연구자 발표(30분)

- 손정식(한양대 경제학부 교수), 박형준(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
교수), 한진수(경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), 이윤희(순천대
사회교육학과 교수)

○ 지정토론자(각10분)

- 김종호(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), 백은영(전 성균관대 교수),
송석원(교육인적자원부 연구관), 임하순(남대문중학교 교사)

○ 자유토론